“전쟁 없는 평화에 매진을”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사관 후보생 수계식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육군 부사관 후보생들을 위한 수계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진성)은 11월 18일 육군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큰법당에서 교육중인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을 펼쳤다.〈사진〉 수계법회는 진성 스님, 교임국장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원경사 주지 자비 스님, 혜동사 선덕 교임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부사관 후보생 5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후보생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간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문공연은 율범 문화예술단이 출연해 달마그림 퍼포먼스, 전통무애 춤, 라틴 왈츠 댄스, 상모굿판 등이 이어졌으며, 후보생들과 출연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으로 마무리됐다.

황정은 후보생은 “입대 전에도 절에 자주 다녔는데, 군에 와서 새롭게 수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미 후보생도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번 수계식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 불교계 자비나눔

빛고을나눔나무, 승려복지 · 아동복지 나서

지역 불교모금단체를 통해 자비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11월 17일 담양 호국사를 찾아 말기 신장병과 고혈압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지궁 스님에게 치료비 600만원을 전달했다.

빛고을나눔나무 승보공양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스님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지궁 스님에게는 매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북구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전달도 화제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중)는 15일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회향을 맞아 동참자들이 낸 기도비 300만원과 빛고을나눔나무 ‘붓다의 선물’ 기금을 더해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에 전달했다.

드림스타트는 조손가정 및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전달한 붓다의 선물은 지원대상 아이들 중 중학교에 진학하는 39명에게 ‘사랑의 책가방’을 선물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심 · 화합 위한 삼보일배

범어사 불교대학총동문회 초발심 다져

삼보일배로 초발심을 다지는 정진의 자리가 개최됐다.

범어사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여예진)는 11월 18일 범어사 입구에서 대웅전 앞마당까지 구법삼보일배 수행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삼보일배는 2시간 동안 총 1.2㎞를 이동해 회향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고, 합장하며 차가운 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합장을 풀고 바닥을 짚을 때는 벅차오르는 환희심으로 눈물을 쏟았다.



범어사불교대학총동문회는 매년 삼보일배로 신심을 고취하고 바른 정법의 길을 안내하며 강조해왔다. 출발에 앞서 범어사 포교국장 효산 스님은 “평생 한 번 해보기 힘든 경험이며 진심으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는 자리가 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다문화가정 “김치 담그며 우리는 하나”

삼광사, 부산 다문화가족 김장나눔문화제 개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이역만리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해 한국문화를 배워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사찰에서 한국 전통음식문화인 김장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지원까지 이어져 세밑 한파를 앞두고 훈풍을 불어넣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11월 20일 경내 마당에서 ‘부산다문화가족 김장나눔문화제’ (이하 다문화김장나눔)를 개최했다.

다문화김장나눔은 우리나라 김장문화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알리는 한편 전통문화를 익히도록 돕고, 아울러 담근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삼광사는 김장배추 1만 포기를 마련했다. 김장김치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소외계층 300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다문화김장나눔에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덕중 스님, 박상준 부산시 정무부시장, 백정림 부산시 여성국 국장과 다문화가족 500여 명 및 신도 100여 명이 동참했다.

본격적인 김장에 앞서 삼광사는 개식선언을 진행했다. 개식선언은 내빈소개와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김장나눔 후원금 전달식 및 자비의 쌀 전달도 진행돼 훈훈함을 남겼다.

다문화김장나눔을 위해 먼저 시원공익재단에서 앞치마와 물티슈 등 300만원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패밀리병원에서 후원금 300만원, 신세계안과에서 후원금 100만원을 삼광사에 전달했다. 이어 삼광사는 다문화가정 및 소외이웃을 위해 쌀 10㎏ 2000포 총 20톤을 후원했다.

결혼이주여성 500여 명 참가
김장 1만 포기 담그며 ‘화합’
소외계층 3천 세대에도 나눔
“한국문화 배울 기회 많아지길”

김장에 동참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처음해보는 김장이 즐겁고 한국문화를 좀 더 알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태종 삼광사가 개최한 김장나눔문화제에서 스님과 불자,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배우에 김장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륜싼원(중국) 씨는 “김장이 처음이다. 집에서도 한 번도 담가본 적이 없었다”며 “새롭게 알게 된 한국문화가 좋다. 매년 이렇게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이린(필리핀) 씨는 “김치를 먹을 때마다 톡 쏘는 맛과 매콤한 맛에 조리법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 만들기 시범을 마친 스님들은 다시 불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함께 김장을 이어갔다. 주지 세운 스님은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스님은 “우리 전통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독특한 음식 문화이다”며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하고 하나 되며 이들이 담근 김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 자리이타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라밀로 다진 대학생 마음공부

부산대 불교바라밀회 34회 창립법회 봉행

부산대학생 포교의 산실인 부산대 불교바라밀회가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수를 확대하고, 선후배간 소통의 자리를 통해 포교의 선사례를 만들고 있다.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회장 박선혜)는 11월 17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소강당에서 제34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가지며 마음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있던 이들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도법사 혜영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과 재학생, 신입생, 졸업생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을 초대해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학생 포교활성화의 원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선혜 불교바라밀회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마음공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제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법을 배웠다”면서 “바라밀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가 11월 17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소강당에서 제34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혜영 스님은 “저는 마음공부를 가르치지만 법우들은 저에게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주는 법회를 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후배들의 장기자랑에서는 대중가요를 마음공부에 맞춰 개사한 음성공양, 선배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7080노래 그리고 신세대 댄스 등으로 선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마음이 담긴 선물을 선배들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창립기념법회에는 바라밀회 초대회장 해피 스님(해피법당 선원장), 법천 스님(무량사 주지), 장상목 교수(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정태권 교수(전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이승한 회장(바라밀회 총동문회), 김상희 총무(부산대 불교학생 동문회)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1985년 창립된 부산대학교 불교바라밀회는 한 때 회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매주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체험, 혜영 스님이 직접 개발한 붓다마블게임 등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수가 48명으로 늘어났고 대학생 포교활동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바라밀동문회 한사랑회에서 50만원, 부산대 불교총동문회에서 3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은 매달 도서지원비 30만원, 연말장학금(부산지원) 200만원, 한마음선원 재단에서 바라밀회 회장에게 대행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불자 포교를 후원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